

한평생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6)

# 판문점에서 울리신 통일의 봄우리

판문점은 이 나라의 지도에서 보면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하다. 개성과 서울을 오가는 길손들을 위한 널문가게들이 있어 판문점이라 불리우던 이곳은 지난 세기 50년대 초 조선전쟁이 진행되면서부터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때로부터 얼마나 무수한 사랑과 증오, 기쁨과 슬픔, 환희와 아픔이 여기에 서리었던가.

바로 이곳에서 통일을 바라는 애국과 분열을 꾀하는 매국사의 대립과 투쟁이 세기를 이어왔다. 외세가 강요한 민족분열의 장벽을 허물기 위한 첫 북남대화의 문도 여기에서 열렸고 남조선수재민들에게 보내는 호호물자를 실은 차들이 이곳을 넘어가기도 하였다. 신념과 의지를 지켜 한생을 바친 불굴의 인간 리인모도 판문점을 거쳐 꿈에도 그리던 공화국으로 돌아왔다. 통일의지로 불리는 애국의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또한 민족을 위한 의로운 걸음을 이곳에 남겼다.

이곳에서 전쟁과 평화의 싸

다. 침략을 노리는 총구에서 불꽃이 튀어오른 것은 그 얼마였고, 돌발적인 불상사가 전쟁으로 번져질 뻔 한 사태는 또 얼마였는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탄처럼 아슬아슬한 긴장과 위기가 항시적으로 감돌고있는 이 최전선 최전방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체85(1996)년 11월 24일 또다시 찾으신다.

당시 미국을 피수로 한 반공화국 적대세력들은 공화국이 민족최대의 국상을 당한 것을 절호의 기회로 삼고 《북조선의 붕괴는 시간문제》라고 떠들며 압살의 칼을 빼들고 덤벼들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분열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바꾸실 의지를 지니시고 판문점을 시찰하시었다.

판문점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통일철명비앞에 서서 분열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바꾸어놓으려는 넘원에서 해마다 해내외의 수많은 통일운동가들이

모여 통일행사를 벌리는 이곳 판문점에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수령님의 통일철명비를 세우도록 하였다. 비에 새겨진 수령님의 친필은 불과 아홉글자밖에 되지 않지만 거기에 담겨진 뜻은 수천 수만자의 비문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거룩하고 위대한 것이라 고 교시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로선과 방침, 방안과 제안들을 몸소 구상하시고 작성하시었다. 그것을 해마다 보고와 연설, 담화를 통하여 친명하시었다. 그 수는 수백권에 달할 것이다. 북과 남이 합의하고 민족앞에 엄숙히 선언한 조국통일3대원칙도,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도,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도 다 우리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가장 합리적인 조국통일방침이다.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3대원칙,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이것이 조국통일의 3대기둥, 3대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교시하시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줄 가장 큰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하시었다. 조국을 통일하고 통일된 조국을 우리 인민들에게 반드시 선물로 주려고 한다고 엄숙히 선언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신 이 선언은 겨레를 통일로 부르는 향도의 피상, 통일의 봄우리였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의 판문점시찰소식에 접한 남조선인들은 《우리 민족에게 통일선물을 안겨주시려는 민족적격사》, 《조국통일의 봉화를 지켜올리신 일대장기》, 《분열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전환시키시 력사적패거》라며 광범히 보도하였다.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자신의 숭고한 사명으로, 필생의 뜻으로 여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판문점에 남기신 거룩한 자욱으로 하여 판문점은 통일의 상징으로 우리 겨레의 마음속에 자리잡게 되었다.

◎ 고귀한 지침이 될어주는

리문국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침된 애국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속에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명언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에게 참된 애국의 길을 밝혀주고 그들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힘차게 고무추동하는 고귀한 지침이다.

나라와 민족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고 운명개척의 기반단위이다.

사람들이 민족국가로 단위로 하여 살아가고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것만큼 민족생존의 운명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떼어놓을 수 없는 련관되어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속에 민족성원 각자의 삶이 있고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속에 매 개인의 행복과 미래가 있다는 것은 수만명은 우리 민족사가 새겨주는 진리이기도 하다. 지난날 우리 민족이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통치에서 상가집 개만도 못한 처지에서 죽지 못해 살아온 것도 바로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이었다.

민족을 이루는 구성원들이 열렬한 애국애족의 마음을 지니고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해 헌신할 때 자기의 운명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갈 수 있다. 하기에 애국은 그 어떤 의무기 전에 인간의 삶의 길, 운명개척을 위한 사활적인 과제로 되는 것이다.

분열된 강토에서 살고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참된 애국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속에 있다.

조선민족은 대대로 하나의 강토에서 한교토를 이으며 살아온 단일민족이다. 이러한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지난

70여년동안이나 분열의 고통을 겪고 있다.

나라의 분열이 지속될수록 우리 겨레가 당하는 피해와 재난은 심해지고 조선반도의 전쟁위험은 커지게 될 것이며 나중에는 민족적합화를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사상과 리념, 계층의 차이를 뛰어넘어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투쟁에 기꺼이 한몸 내대야 한다.

우리 민족을 영원히 돌로 갈라놓으려는 외세의 민족분열책동과 그에 추종하는 반통일세력의 사대매국책동에 의해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커다란 난관이 조성되고있다.

안팎의 반통일세력의 도전은 단호히 거부하고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는 것은 현시국 우리 민족앞에 나선 지상의 과제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각계층 인민들이 참된 애국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속에 있다는 진리를 새겨안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지난 1월에만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가로막고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적극 벌리었다.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 우리 겨레의 힘찬 투쟁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내외반통일세력을 반대하는 거족적인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때 조국통일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오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통일교실

## 조국통일의 천하지대본

우리 민족의 최대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서 천하지대본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아닌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 것이다.

주지하는 것처럼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 북과 남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액을 다시 있고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조국의 자주적통일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민족의 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다.

외세가 강요한 민족분열로 하여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도 오래동안 존재하고있다. 그러나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해도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발전된 우리

민족의 공동성보다 클 수 없다.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두개 민족이 대치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이 한 조국강토안에서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갈라져 있었다. 우리 민족은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하나의 혈통을 이어받고 같은 말을 하며 한강토에서 살아온 하나의 민족이다.

조선사람들은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서 살건 다같이 조선민족의 피와 넋을 지닌 하나의 민족이며 민족공동의 리익과 공동된 민족적성리와 감정으로 뭉수 없이 련결되어있다. 나라와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고 민족의 존엄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민족적 특질이다. 조선민족의 피와 넋을 지닌 사람이려면 조선 민족의 우수한 민족성을 소중히 간직하고 지켜나가야

한다. 오늘 조선사람에게 있어서 참다운 인생의 가치와 보람은 자신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결할하고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융성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몸과 마음을 바치는데 있다.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 계급과 계층의 차이에 관계없이 민족자주의 기치,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탁한 민족반역자들, 반통일세력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 안팎의 분열주의세력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서는 민족의 대단결도 조국통일도 실현할 수 없다. 민족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는 거족적인 투쟁을 벌려 민

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근원을 철저히 없애야 한다. 이와 함께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 없이 일신의 안락과 권세를 위하여 외세와 결탁하는 민족반역자들의 반통일정책, 민족분열책동을 반대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또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마련된 민족대단합, 애국애족의 경모와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살려나갈아야 한다.

공화국은 민족적방향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해 나서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와 조국통일을 위하여 함께 손잡고 나아갈것을 일관하게 주장하고있다.

은 겨레는 조국통일의 천하지대본인 민족대단결로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최명숙



조국해방 70돐기념 민족통일대회중에서 (2015년 8월)

## 통일을 불러

### 련북애국의 길에서 빛나는 삶 (3)

1948년의 봄은 조완구선생에게 인생의 봄이었다.

은 겨레가 항일의 전설적 영웅,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르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주체37(1948)년 3월 조완구선생을 비롯한 남조선의 여러 정당, 단체의 지도자들에게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에 참석할때 대한 내용을 담은 초청장을 보내주신 것이다.

이에 격동된 조완구선생은 김구, 김구식, 홍명희, 조소앙선생들을 중심으로 통일독립운동자협의회를 결성하고 《남북련석회의의 추진에 관한 특별결정서》를 채택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그후 조완구선생은 김구선생을 비롯한 《한국독립당》의 대표들, 김구식, 최몽오선생을 비롯한 민족자주련맹

대표들과 함께 서울을 떠나 북행길을 다그쳤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4월 남북련석회의에서 조완구선생을 회의주석단성원으로 만수무답하시었다.

사실 미국과 남조선반통일세력들의 방해책동으로 선생의 일행은 회의에 늦게 참석하게 되었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완구선생을 비롯한 여러명의 인사들을 주석단성원으로 보선할것을 제의하시었다.

이렇게 되어 력사에 길이 남을 뜻깊은 회의에서 조완구선생은 주석단성원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북과 남의 56개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의 대화합을 능숙

하게 지도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선생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전설적 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심으로 하여 통일정부수립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후에도 여러 차례 조완구선생을 비롯한 남조선대표들을 만나주시었다.

이에 대하여 당시 남조선의 《서울신문》(1948년 5월 3일부)은 이렇게 썼다.

《남북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를 계기로 평양에 모인 남북지도자들사이에는 남북통일을 도상에 놓고 회담을 진행시키고있다. 즉 지난 24일 오후 6시에는 김일성장군이 남조선의 김구, 김구식, 조완구, 홍명희 등 제석과 정치문제에 대한 의논을 하였다. ...》

조완구선생은 남북련석회의의 이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호모의 마음

으로 심장을 뚫어놓았다.

특히 선생은 남조선의 이름있는 인사들과 함께 정치아름다운 대동강의 축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또다시 뵈옵는 영광을 지닌 그날을 영원히 잊을 수 없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선생을 비롯한 남조선대표들과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하시고 그들이 궁금해하던 문제들과 의견, 제안들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명쾌한 해명도 해주셨다.

그러시면서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의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비범한 통찰력과 뛰어난 지략, 강철의 의지와 애국애족의 뜨거운 열정을 선생을 비롯한 남조선대표들을 한없이 경건한 마음에 휩싸이게 하였다.

뜻을 이날 소박한 점심식사자리도 마련해주시고 남조선대표들앞에 손수 송어회와 어죽을 옮겨놓아주시기도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며 선생은 감격이 목이 메어 눈물을 적시었다.

그때 조완구선생이 심장에 더욱 깊이 새겨안은 철리가 있었다.

그것은 절세의 애국자의 빛을 받아야 애국의 씨앗도 싹트고 꽃피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렇듯 조완구선생이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를 계기로 평양에 와서 체류한 기간은 비록 보름에 불과했지만 그 하루하루는 그에게 있어서 지난 생애는 대비조차 할 수 없이 너무나 소중한 날이었다.

## 조국통일과 새세대들의 책무

남조선의 《강원일보》가 전한데 의하면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남조선전역의 734개 초, 중, 고등학교 학생 총 7만 2 524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통일의를 알아보는 여론조사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조사결과 4명중 3명의 학생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남조선의 새세대들속에서 통일의식이 날로 높아가고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 품어온 민족의 혈액을 이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민족의 최대숙원을 하루 빨리 풀기 위해서는 온 겨레가 통일애국성업에 떨쳐나서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요구앞에서는 이 땅의 남녀로소 할것없이 누구나 숭고한 사명감을 받아안게 된다.

새세대들은 조국통일의 철차를 기운차게 몰아가야 할 통일애국의 주역이며 통일된 강토에서 북락을 누릴 미래의 주인공들이다.

통일이 없으면 민족의 미래도, 새세대들의 밝은 앞날도 없다.

돌이켜보면 지나온 나날 남조선의 청년학생들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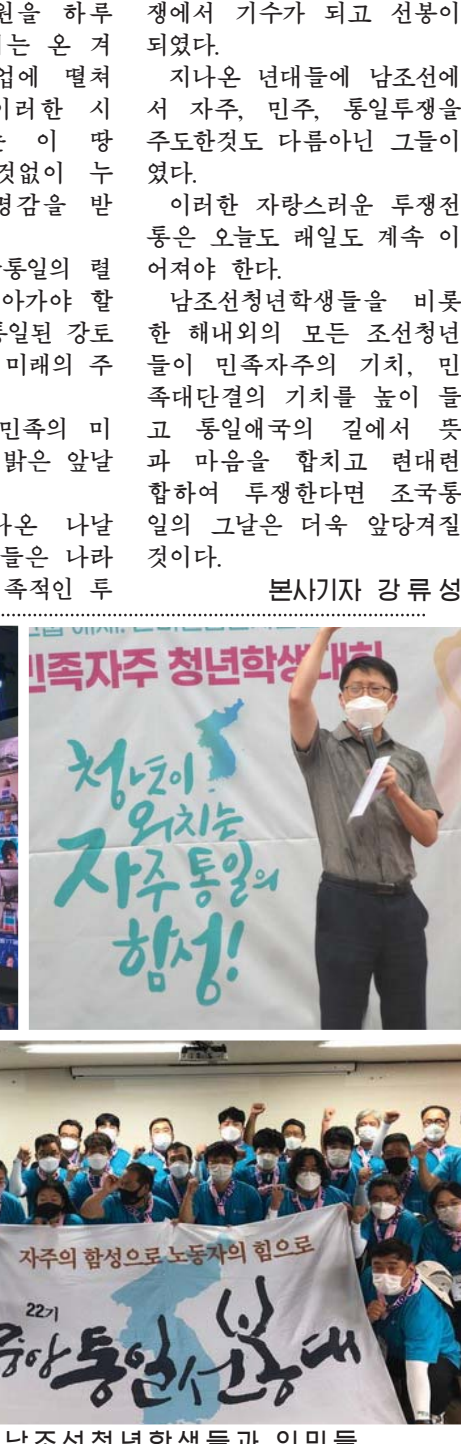
쟁에서 기수가 되고 선봉이 되었다.

지나온 년대들에 남조선에서 자주, 민주, 통일투쟁을 주도한것도 다름아닌 그들이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투쟁전통은 오늘날도 매일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을 비롯한 해내외의 모든 조선청년들이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통일애국의 길에서 뜻과 마음을 합치고 련련합하여 투쟁한다면 조국통일의 그날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

본사기자 강류성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4월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였던 남조선대표들과 협의회를 진행하신 장소

본사기자